

수재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취재 / 이상건
(홍보부 대리)

시민들의 보행과 교통 소통을 위해 서울 남대문앞에 지하도가 만들어진 이래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에는 크고 작은 많은 지하도가 생겨났다. 대부분의 지하도 건설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면서 의류, 신변잡화, 피혁 등을 취급하는 점포와 식당 등이 들어서게 되었고 순수 통행의 목적외에 쇼핑을 위한 행인의 출입이 늘어나면서 이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소방법에서는 이들 시설물이 진화 및 인명구출이 어려운 지하 시설물임을 감안,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방화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경주됐고 아직까지 지하도에서의 대형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하시설물이기 때문에 풍수재등 천재지변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호에는 뜻하지 않은 수재를 당하여 대형화재에 못지 않는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극복해낸 강남지하상가를 찾았다.

개요

강남지하상가는 강남버스터미널앞 도로 지하에 위치하며 총연장 870m에 바닥면적만도 3만1천여㎡에 이른다. 편이상 1, 2, 3공구로 나뉘어 불리며 이번에 수재를 당한 본 상가는 제2공구로써 바닥면적 1만2천4백여㎡, 2백26개 점포에 3백명의 상인이 임대 사용중이다.

이 상가의 관리권자는 호정개발(주)로서 서울시로부터 민자유치 사업체로 지정받아 지하도를 건설하고 지하도로상의 공지에 점포를 만들어 서울시에 기부채납, 20년간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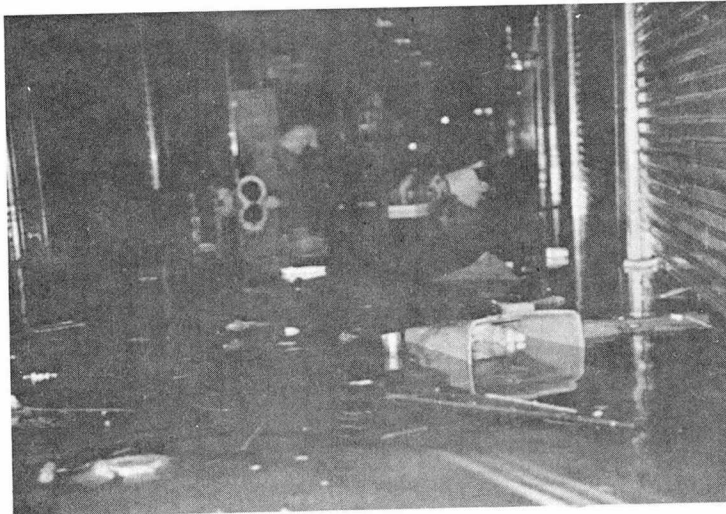
점포의 주종은 의류, 신발, 신변잡화, 피혁, 화장품, 서점 등으로 주변의 상가와 더불어 강남지역의 중요상권을 이루고 있다.

수재발생 상황

지난 87년 7월26일. 서울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후 11경 폭우로 변하면서 230mm이상의 집중폭우를 쏟아 부었다.

폭우가 계속되면서 반포동 일대의 빗물은 낮은 지대인 고속터미널 앞쪽으로 모여들었고 새벽 3시경부터 인근 유수지의 수위상승으로 배수되지 못한 빗물이 지하상가 상부의 도로에 고이기 시작했다.

다음날인 27일 새벽 6시경,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는 역류된 유수지와 인근 지역의 빗물로 약



1.2m정도 잠겼다.

도로에 고인 빗물은 새벽 4시경 제3공구 출입구로 넘어 들기 시작하면서 지하상가의 모든 출입구로 빗물이 들어왔다. 곧이어 3공구에 설치된 방화문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2공구가 일시에 침수되었다.

새벽 7시경 비는 멈추고 도로의 빗물이 빠지자 더 이상의 침수는 없었으나 이미 2만2천여톤의 빗물이 유입되어 최고 4m까지 침수되었다.

피해 및 복구작업

이 사고로 기계실 부분이 4m, 점포부분이 2m 정도까지 침수되면서 내벽 및 간막이, 천정이 파손되었고 내부 상품과 진열장 등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었다. 특히, 냉·난방용 보일러 및 냉동기, 공기조화설비, 각종 팬넬, 발·변전설비, 전화 및 전기내선 등이 완전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어느 정도 예고된 사고였고 영업을 끝난 후였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비가 멈추면서 사장을 포함한 80여명의 임직원과 가족까지도 참여한 복구작업이 밤낮없이 진행되었다.

불과 1, 2시간만에 침수된 물을 빼내는데만 소방차 32대가 2일간을 꼬박 퍼냈고 이와 별도로 양수기 10대를 동원하여 5일간을 계속 퍼냈다.

물빼기작업이 끝나자 열풍기 6대와 선풍기를 동원, 건조시키는데만 3주일이 소요됐다.

이때 각계의 지원 역시 대단한

것이어서 복구작업에 크게 도움이 됐다.

소방서의 차량지원, 구청의 청소원지원, 한전의 전기응급복구 및 통신공사의 전화복구 등 하루 4백여명이 동원된 대복구작업이었다고 한다.

이재보상 및 복구후 대책

복구시의 가장 큰 애로점은 복구비 문제였으나 뜻밖에 화재보험협회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어 다행이었다는 김 정일 전무는 『화재보험하면 화재로 인한 피해만 보상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풍수재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이 되어 3백여 점포주 및 그 가족 등 2천여명의 생계에 까지 큰 도움이 됐다』며 『협회에서 보상해준 보험금이 없었다면 파산했을지도 모를 상태였기에 어느면에서는 특혜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면서 협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한다.

당시 이 상가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보험가입금액 12억9천3백여만원, 보험기간 1년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협회는 즉시 손해사정에 임했으나 배수정리, 점포정리 및 임시복구공사 등으로 인해 9월초에야 현장실사를 할 수 있었다.

위낙 광범위한 피해인 점을 감안하여 즉시 가도보험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추가로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복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협회는 지난 3월 피해액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잔여지급보험금 1억36만여원을 포함 총4억36만여원의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

이재보상과정에 있어 협회의 업무자세에 대해 『보상과정에서 느꼈지만 보험계약시기와 마찬가지로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시의 자세가 너무 친절하게 계약자 위주로 처리되어 정말 의외였다』면서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환풍이라든가 적게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 상례라며 『이번 일을 겪고나서 지하상가협회에서 총회나 이사회가 있을 때마다 회원사들에게 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버릇이 생겼다』며 웃는다.

복구작업이 끝나자 또 다시 있을지 모를 재난에 대비하여 환기구 높이고 지하도 출입구마다 수방판을 제작하여 비치하였다.

또 소방훈련의 회수를 늘려 화재는 물론 수재 등 천재지변에도 대비한다고 한다.

수재의 무서움을 직접 경험했던 터라 교육에 임하는 입주사 및 종업원의 자세가 무척 진지하다는 김 전무의 모습에는 두번 다시 수재는 없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이번 강남지하상가의 수재에서 보았듯이 대응하는 마음자세에 따라 얼마든지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 임직원의 모습에서 재난없는 복지사회를 기대해본다. (☎)